한화투자증권

경제 임혜윤
hylim@hanwha.com
3772-7728

Hanwha Macro Monthly
데이터 블랙아웃

11
2025

"연말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지표 공백에 따른 경기 판단의 어려움,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 이견, 연준 전망과 시장 기대 간 격차 확대 등이 부담입니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2025년 11월 17일 |

Contents

I. 핵심요약 03

II. 데이터 블랙아웃 04

연말까지 셧다운 여파 04

버티는 달러화 06

원/달러 환율 미스터리 08

신용 리스크 확산의 기준 10

III. Hanwha's Macro View 12

IV. Economic Calendar 24

I. 핵심요약

연말까지 높을 불확실성

연말까지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셧다운에 따른 경제지표 공백 여파는 적어도 FOMC 이전까지 지속될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과 시장 기대 간 격차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물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실물지표가 지연되고 심리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라면, 양호한 실물경기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표 공백으로 판단 어려움

필자는 미국 경기가 완만한 둔화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장은 경기 판단이 쉽지 않다. 대체지표를 활용하면 해석의 범위가 넓어져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크다. 경기 흐름이 양호해도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다.

버티는 달러화

달러화도 당분간 약해지기 어렵다. 다음 달 FOMC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이벤트일 수 있지만, 달러화가 더 약해지려면 물가 둔화가 확인돼야 한다. 에너지와 주거 물가 둔화를 감안하면, 내년 초 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2% 내외로 연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해 달러화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연말 원/달러 환율 1,450원 내외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50원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 불확실성, 연준과 시장의 금리 전망 격차, 엔화 약세 등이 부담이고, 대내적으로는 해외증권 투자의 가파른 증가와 국고채 공급 확대가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들 영향이 완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10월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외요인의 영향은 연말부터 점차 약해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 1,400원 하회 전망

늘어난 해외투자도 환율 상승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들 영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돼도 강도가 약해지면, 환율 상승 압력은 완화될 수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글로벌 제조업 반등,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은 내국인 해외투자와 외국인 국내투자의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 중 1,400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용 리스크는 공포보단 모니터링 대상

최근 불거진 미국 일부 은행 대출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비예금금융기관(NDFI) 대출은 주로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중대형은행에서 실행됐다. NDFI 대출 특성상 담보 설정 과정이 다른 대출보다 덜 엄격했을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손실 자체보다는 이익 감소나 충당금 증가와 같은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를 충격 확대의 조짐으로 봐야 한다.

II. 데이터 블랙아웃

연말까지 셧다운 여파

미국 경제지표 공백 여파

미국 경제지표 공백의 여파는 적어도 FOMC 이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경기 판단이 쉽지 않다. 대체지표를 활용하면 해석의 범위가 넓어져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금리 결정 전까지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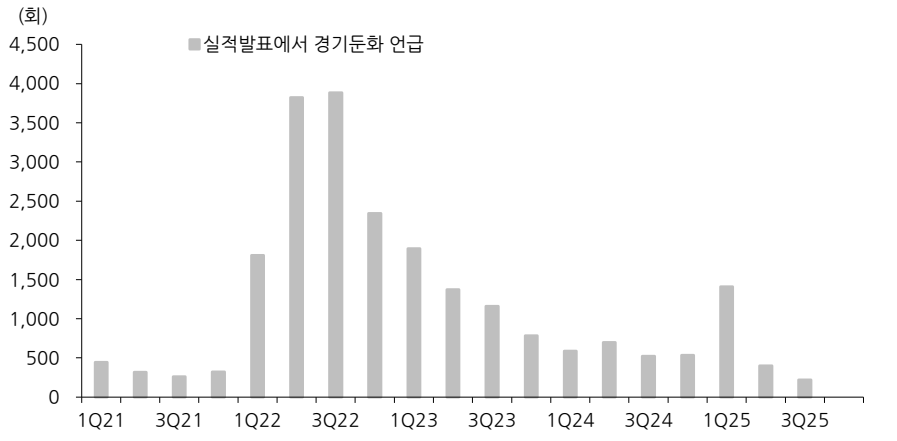
경기 흐름 당장 확인 어려움

필자는 미국 경기가 완만한 둔화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그림1]. 고용 위축이 가파르지 않고, 구매력은 양호하다. ADP 민간고용이나 Indeed 구인공고는 노동수요 약화를 시사하는데[그림2,4], 이는 기업들이 이전보다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의미다. 3/4분기 신용카드 지출 증가율은 상승했고, 지난달 감원 급증(Challenger, Gray & Christmas 발표)은 AI 도입과 셧다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5].

연말까지 불확실성 높은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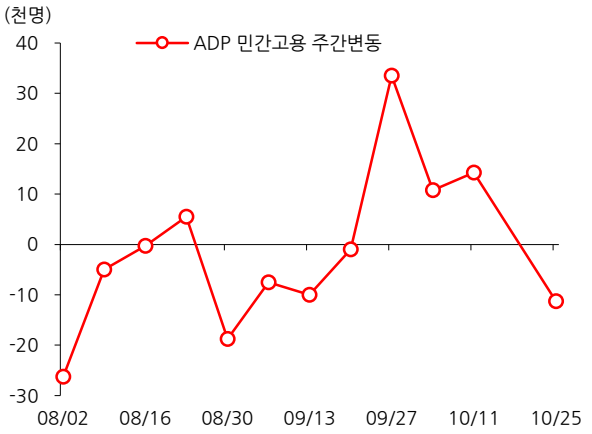
경기 흐름이 양호해도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다. 셧다운이 종료됐어도 지표 발표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 10월 고용과 물가지표 공개가 불가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비자심리지수, 소기업 낙관지수 등 서베이지표(soft data) 또한 약하다[그림6,7]. 실물지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심리지표도 둔화되는 국면이라면, 양호한 실물경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림1] 기업들의 경기 둔화 우려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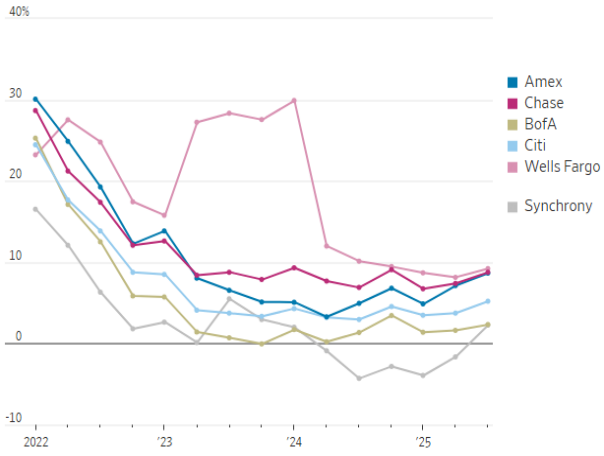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ADP 고용지표는 노동시장 둔화를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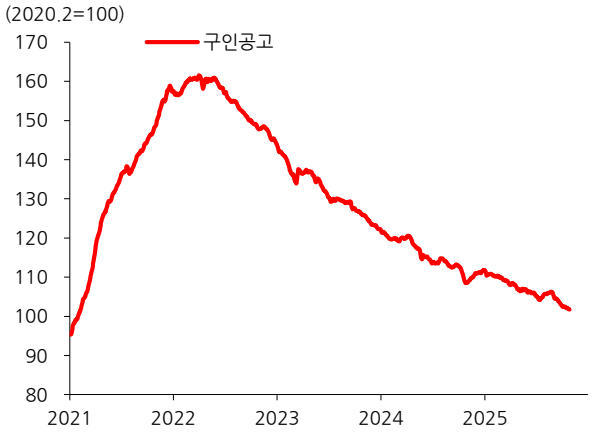
주: 4주 이동평균
자료: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3/4 분기 신용카드 지출 증가율 상승



자료: Wall Street Journal

[그림4] 구인공고 감소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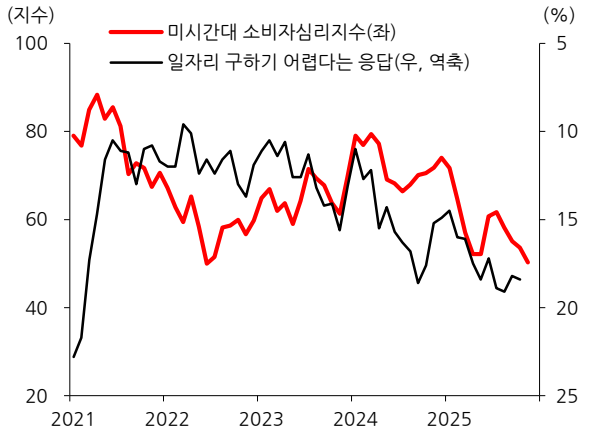


자료: Inde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지난달 해고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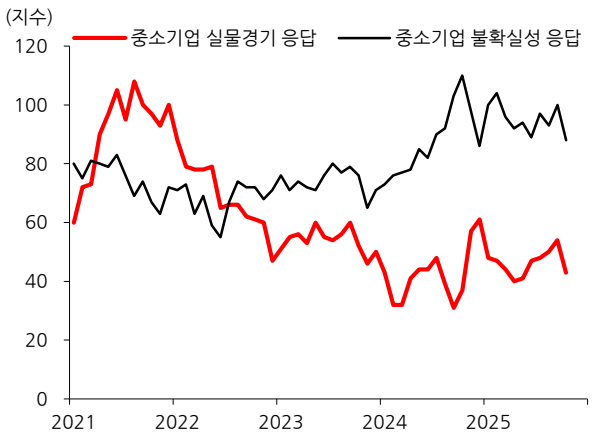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In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소비심리 둔화, 구직 난이도 상승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The Conferenc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소기업 체감 불확실성 완화됐으나 업황도 둔화



주: Small Business Optimism index. 실물경기는 실적/재고/채용/투자 계획에 대한 응답
자료: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버티는 달러화

셧다운은 강달러 압력

외환시장에서 셧다운은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물가 우려가 높아졌고,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 내 이견이 생겼다. 10월 FOMC 직전까지 선물시장은 연내 50bp 추가 인하 확률을 90% 이상 반영하고 있었지만, 13일 현재 12월 인하 확률은 50%를 하회한다. 물가지표 부재와 더불어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달러인덱스는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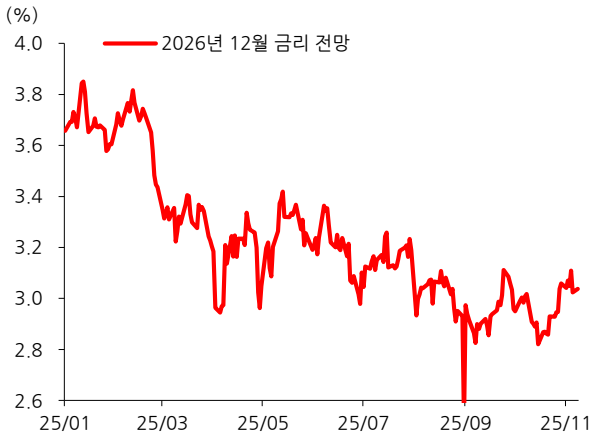
물가 우려로 약달러 제한

예상대로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하면,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과 연준의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화가 약해질 수 있다. 다만, 아직 관세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세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선물시장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3.0%로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의 최근 전망(9월 점도표 median 기준)은 3.5%다[그림8,9]. 달러화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해 더 약해지려면, 물가 둔화가 확인돼야 한다.

내년 상반기 약달러 압력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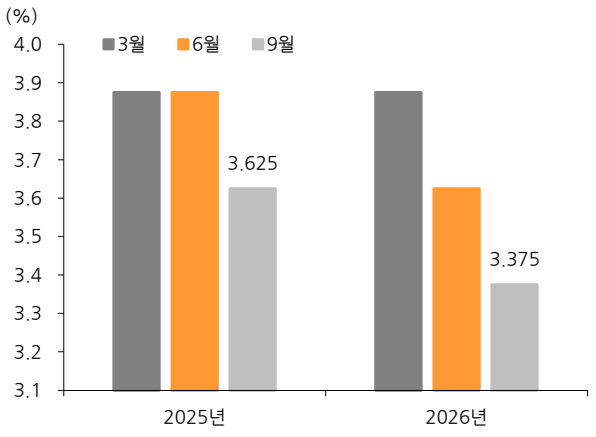
달러화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본다. 정해진 관세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기업들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가격 전가는 관세 인상 1년 이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후 수입물가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는데[그림12], 에너지와 주거 물가 둔화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은 연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전월대비 0.2% 내외로 안정되면, 연준 금리 전망과 시장 기대 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약달러 압력도 강해질 전망이다[그림10].

[그림8] 선물시장은 내년 말까지 최소 3 차례 금리 인하 반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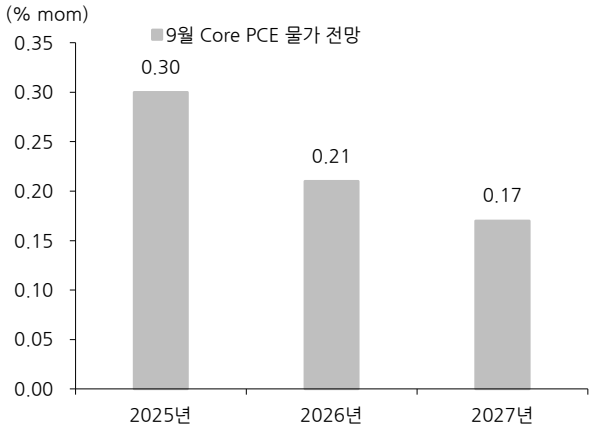
주: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점도표는 내년 말까지 2 회 인하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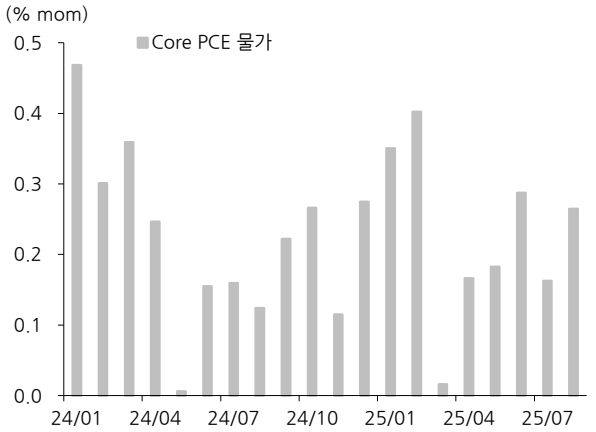
주: 점도표 금리 전망 중위값(median)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연준은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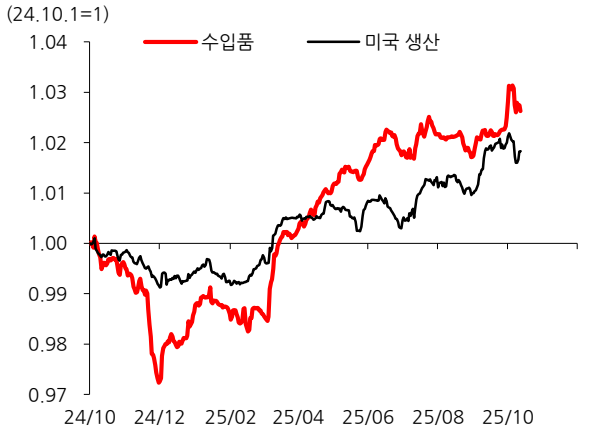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최근 물가 상승률 0.2%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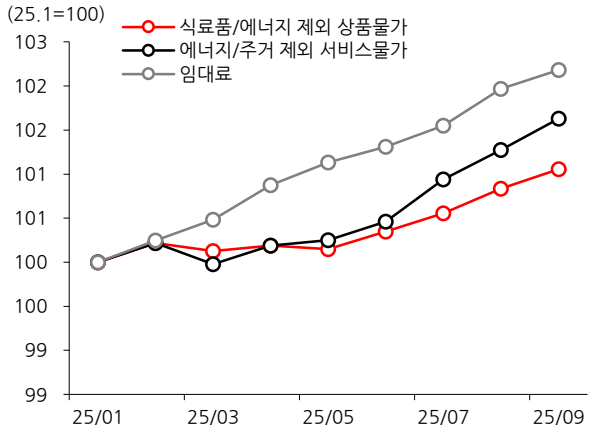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관세 유예 종료되면서 수입물가 상승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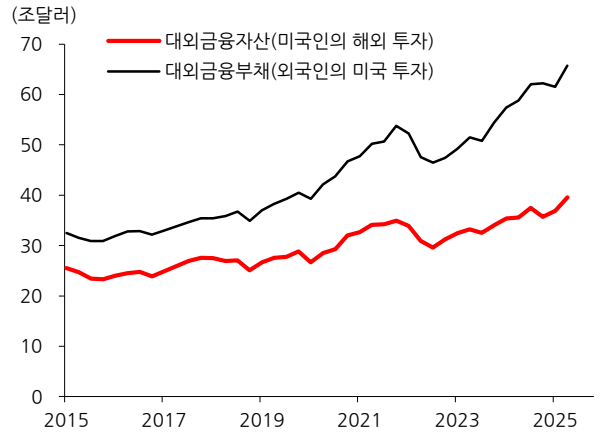
자료: HBS Pricing Lab,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상품물가 상승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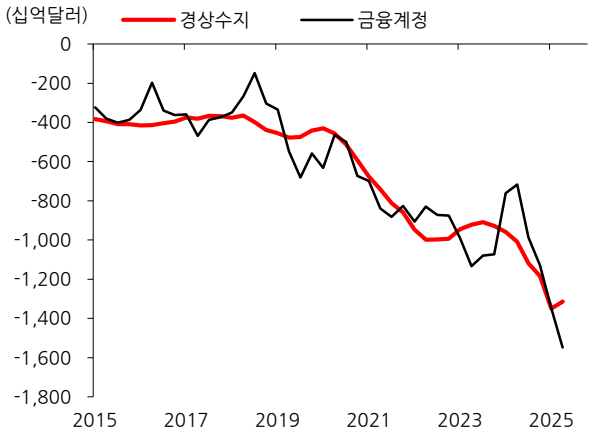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달러화 자산에 대한 양호한 대외수요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가팔라지는 달러화 유입(금융계정 순부채 증가)



주: 4개 분기 이동합(rolling sum)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원/달러 환율 미스터리

연말까진 환율 하락 제한

연말까지는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기 불확실성, 연준과 시장의 금리 전망 격차, 엔화 약세 등이 부담이고, 대내적으로는 해외증권 투자의 가파른 증가와 국고채 공급 확대가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들 영향이 완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대외 부담은 연말부터 완화

미국 경기와 연준 스탠스 관련 불확실성은 연말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세가 더 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강달러 압력은 약해질 것이다. 엔화 또한 일본 경기 회복과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해 추가 약세가 제한될 수 있다. 10월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외요인의 영향은 연말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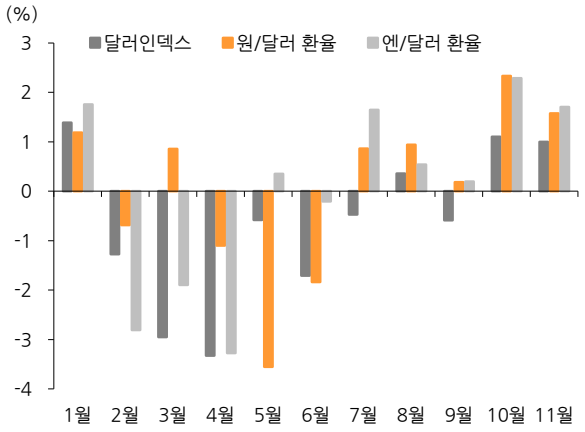
해외투자 확대도 일부 영향

늘어난 해외투자도 환율 상승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올해 내국인의 해외주식과 채권 투자(=증권투자 자산)는 7월에 이미 지난해 연간 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개인, 금융기관, 정부(연기금) 투자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고, 9월 이후에는 개인의 해외주식 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18,19]. 그 결과 내국인 해외투자(998억 달러)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경상수지 흑자(828억 달러)를 상회한다[그림20]. 수출과 배당으로 벌어온 외화보다 해외주식 투자로 빠져나간 금액이 크다는 의미다.

내년 상반기 1,400원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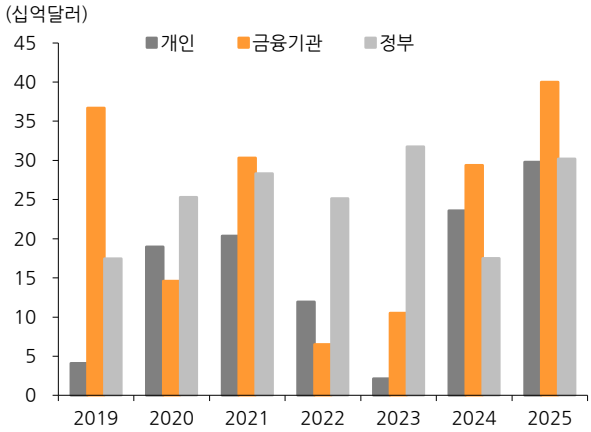
내년에는 이들 영향이 점차 약해질 전망이다. 해외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돼도 강도가 약해지면, 환율 상승 압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글로벌 제조업 반등,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은 증권투자 자산(내국인 해외투자)과 부채(외국인 국내투자)의 격차를 줄이는 요인이다(=증권투자 순자산 감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은 성장이 강해지면서 완화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말 1,450원을 하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400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16] 상반기는 국내 이슈, 하반기는 대외요인이 환율 변동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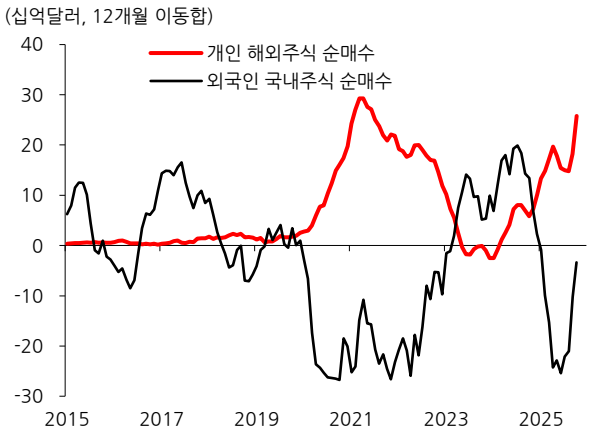
주: 월평균 환율의 전월대비 변동. 11월은 12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코로나 이후 민간의 해외투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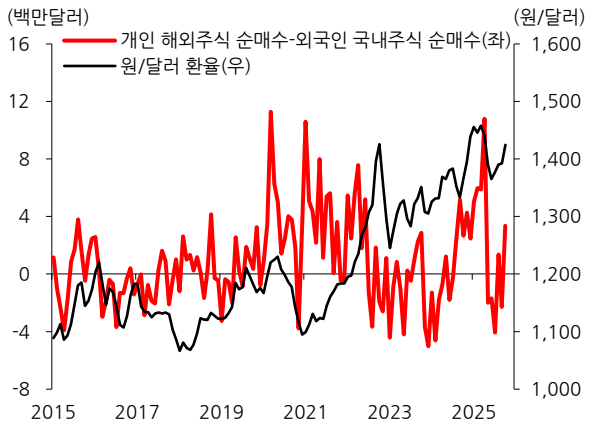
주: 주체별 해외증권 투자. 2025년은 1~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9 월 이후 개인 해외주식 매수 가파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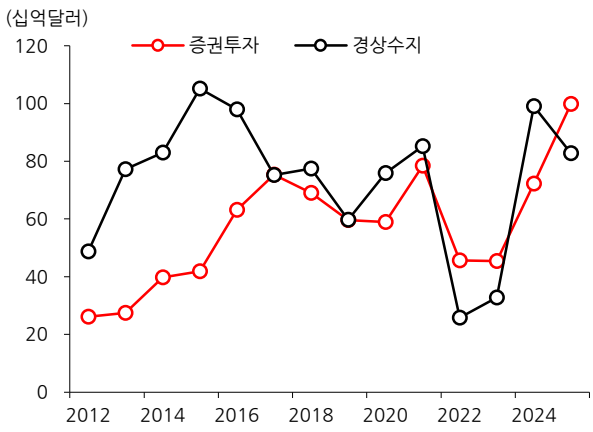
자료: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내국인의 해외주식 매수세 강화는 환율 상승 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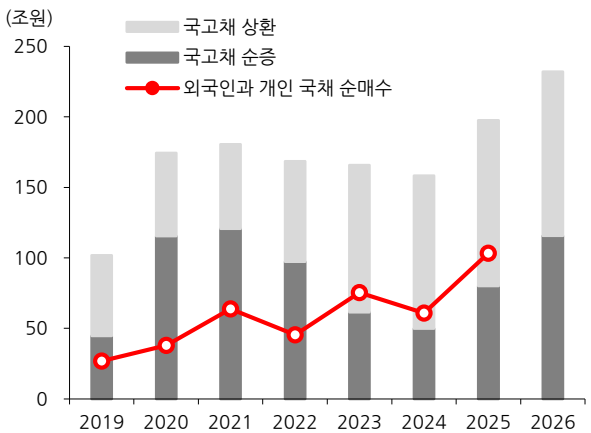
자료: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이례적으로 내국인 해외투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섬



주: 주체별 해외증권 투자. 2025년은 1~9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국고채 공급이 수요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음



주: 2025, 26년 국고채 전망은 본예산 기준. 2025년 국채 순매수는 1~10월 누적
자료: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신용 리스크 확산의 기준

신용 리스크 영향 제한

최근 불거진 일부 은행 대출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대형은행들의 비예금금융기관(Non-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 NDFI) 대출 비중이 높지 않고, 이들 대출은 주로 자산 건전성이 양호한 중대형은행에서 실행됐다. NDFI 대출의 가파른 증가와 담보 검증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리스크를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그림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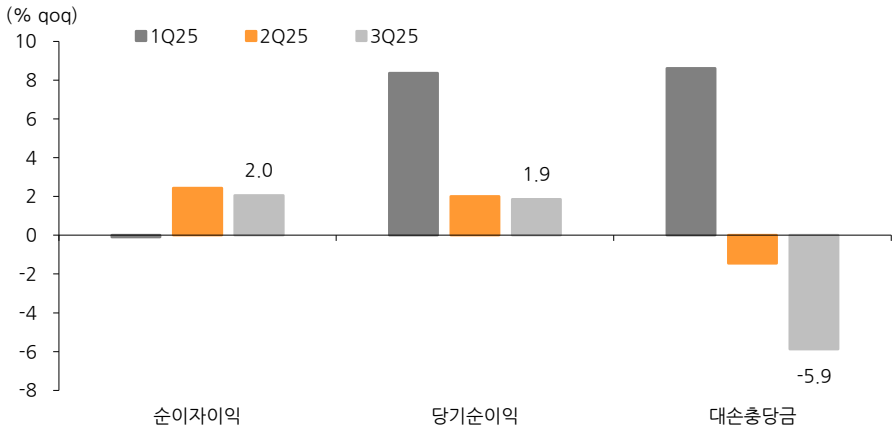
양호한 은행 실적

첫째, 은행 실적이 안정적이다. 3/4분기 4대 대형은행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전기대비 증가했고,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감소했다[그림22]. 양호한 경기와 자산시장 강세가 반영된 결과다. 다양한 부문에서 이익을 냈다는 점과 건전성 개선을 토대로 충당금 부담이 줄었다는 점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은행들의 체력이 강해졌다면,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NDFI 대출은 중대형은행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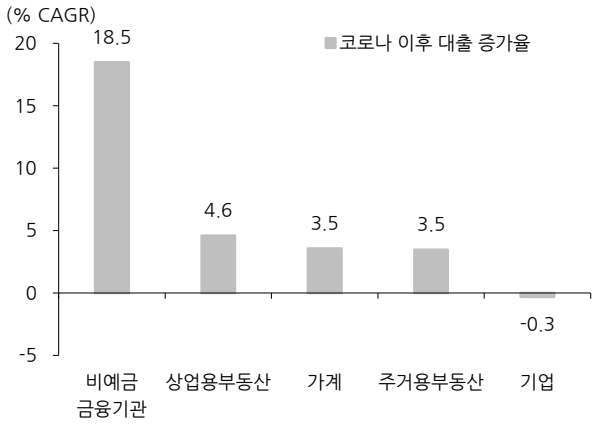
둘째, 부실 리스크가 큰 대출은 중대형은행에 집중돼 있다. NDFI 대출의 85% 이상을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이 취급했다[그림25].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신용펀드(Private Equity Funds) 대출 비중 상위 은행도 대부분 중대형은행으로 리스크 대응 여력이 있다[그림26]. NDFI 대출 특성상 담보 설정 과정이 다른 대출보다 덜 엄격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손실 자체보다는 이익 감소나 충당금 증가와 같은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를 충격 확대의 조짐으로 봐야 한다.

[그림22] 안정적인 대형은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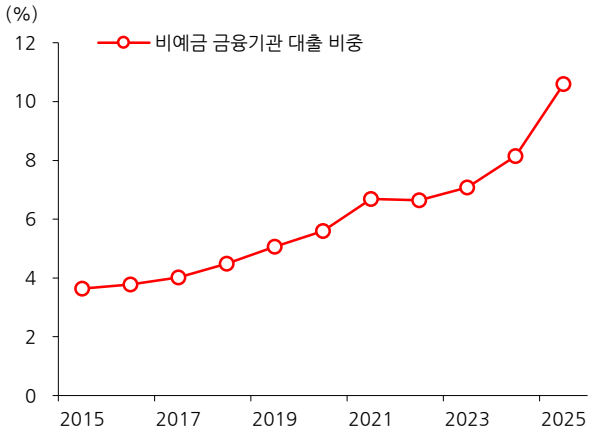
주: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group 합계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비예금 금융기관 대출 증가세 강화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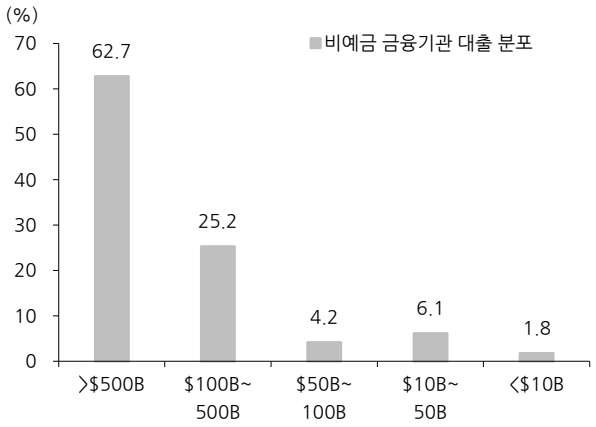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해당 대출 비중 높아지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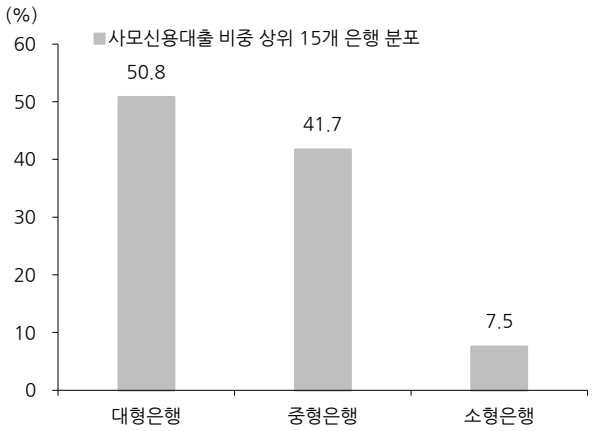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자산 1,000 억 달러 이상 은행의 대출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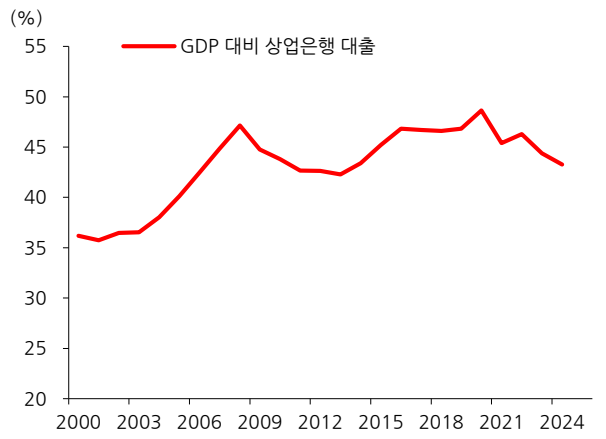
주: 자산규모별 분포. 4Q24 기준
자료: S&P Global,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PEF 대출 90% 이상이 중대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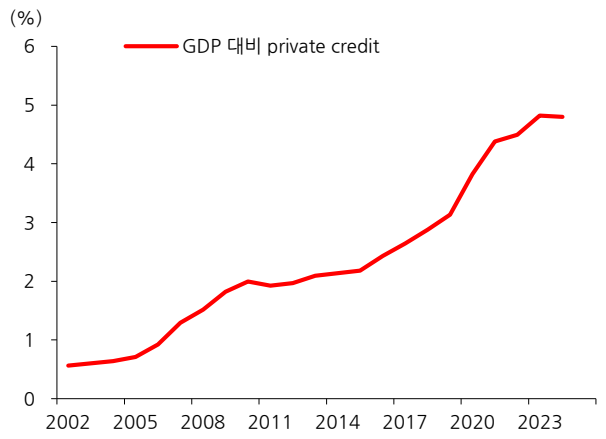
주: 대형은행 자산 3,000억 달러 초과, 중형은행 자산 1,000~3,000억 달러. 4Q24 기준
자료: S&P Global,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GDP 대비 대출 비중은 코로나 이후 하락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사모신용은 가파르게 성장



자료: Federal Reserve Board,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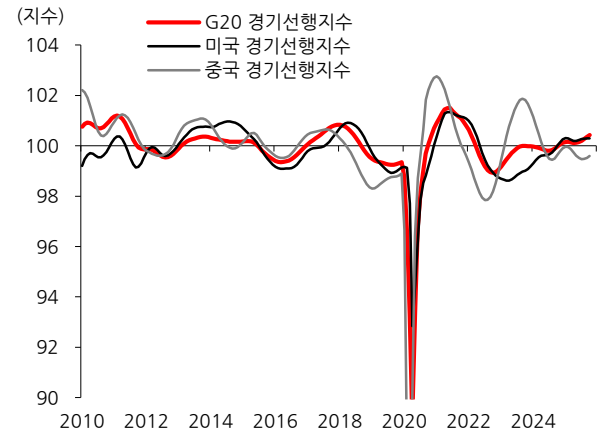
Ⅲ. Hanwha's Macro View

[표1] Hanwha's Macro View

구분	단기(4Q25)	중기(2026년)
글로벌	-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 제조업 경기 저점 통과 조짐	- 제조업과 투자가 회복 주도 - 성장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 유지
한국	- 반도체 수출 강세 지속 - 추경 효과로 소비 반등	- 수출 6% 내외 증가하면서 성장 주도 - 2% 근접한 성장
미국	- 셧다운 여파로 지표 발표 지연 -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 이견 확대	- 무난한 소비, 강해지는 투자 - 1% 중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중국	- 정책 부재와 대외수요 둔화로 더딘 회복 - 4% 중반대 성장 가능	- 산업 구조조정 기조 강화 - 성장률 하락 불가피하지만, 생산성 개선 기대
유로존	-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효과로 완만한 회복 - 탄력적인 모멘텀은 부재	- 투자 확대로 1% 초반대 성장 -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효과 기대
FX	- 원/달러 환율 1,450원 내외 등락 - 연말 환율 1,400원 중반	- 완만한 달러화 약세 - 2026년말 원/달러 환율 1,350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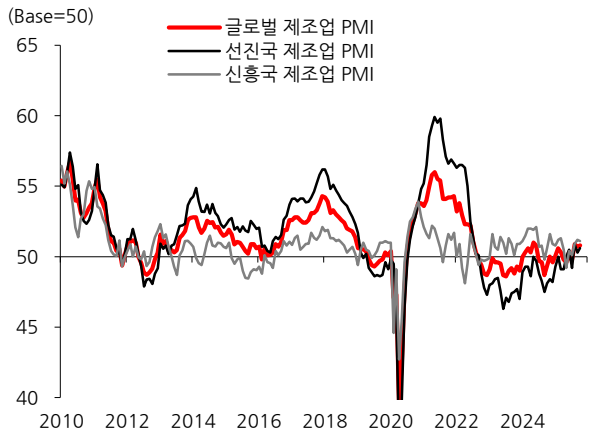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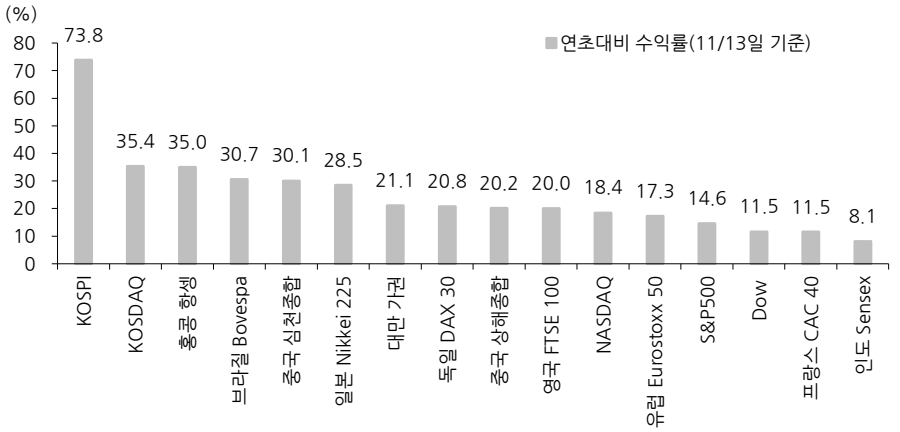
자료: OEC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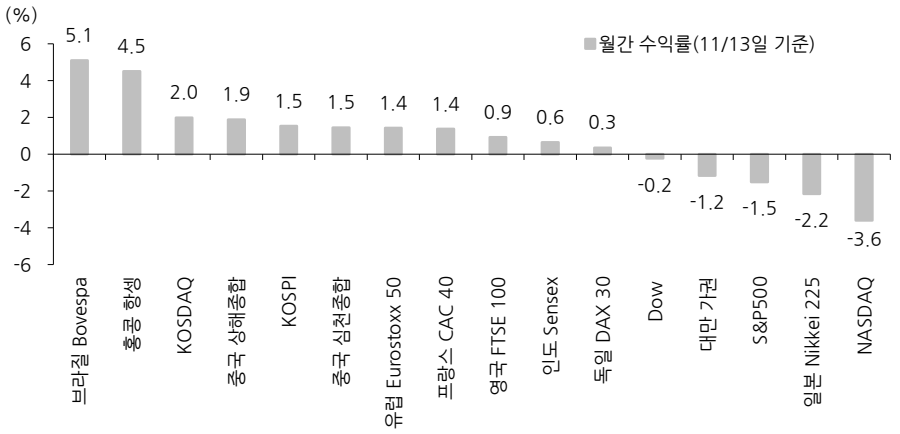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주요국 주식시장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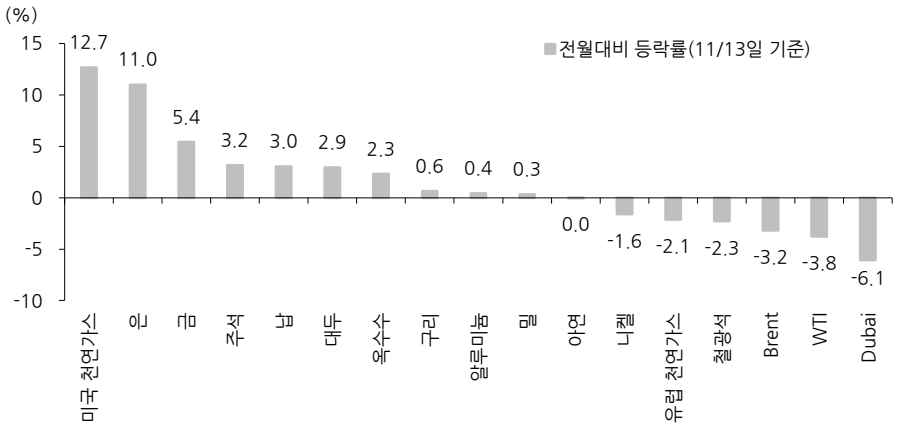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주요국 주식시장 월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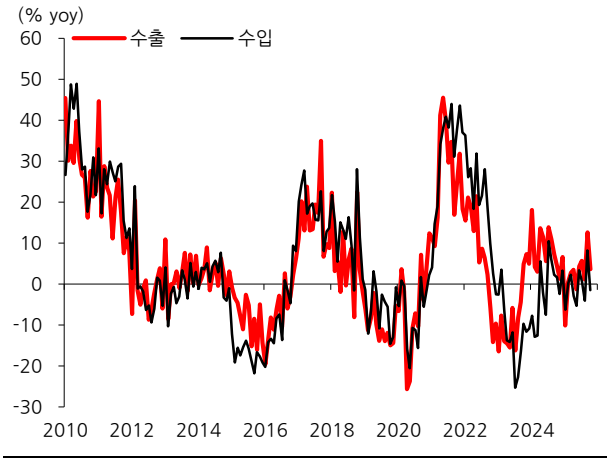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단단한 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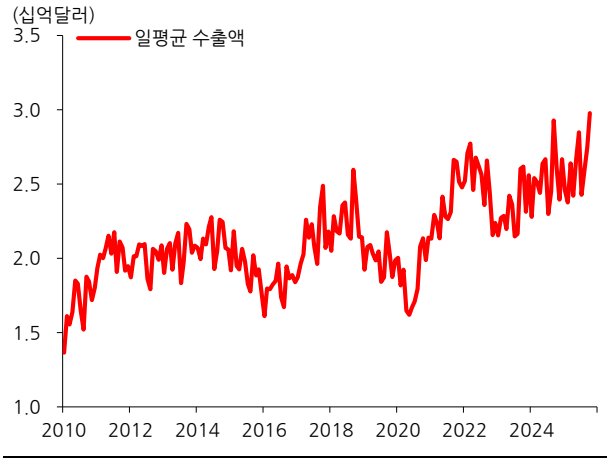
- 10월 일평균 수출 29.8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 경신
- 메모리반도체 호조 지속, 非반도체 수출도 반등
- 4/4분기 실물경기 대체로 양호. 원/달러 환율은 연말까지 하락 제한

[그림34] 한국 수출 +3.6%, 수입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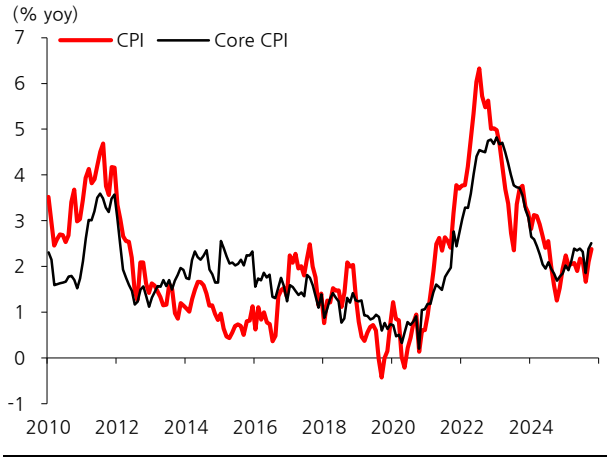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일평균 수출 29.8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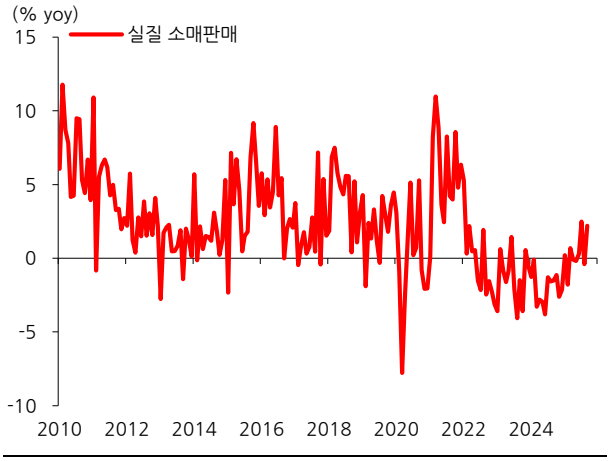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한국 소비자물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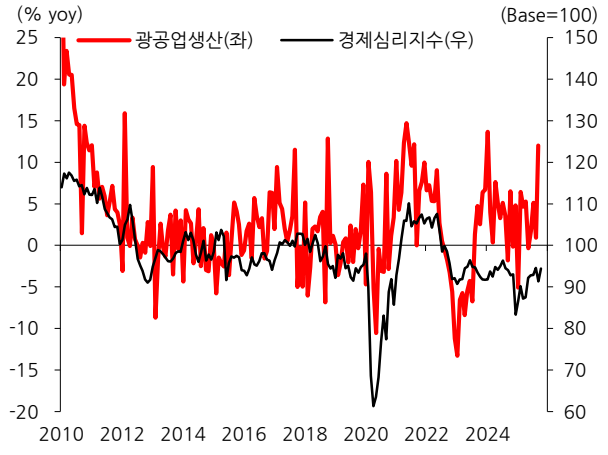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한국 소매판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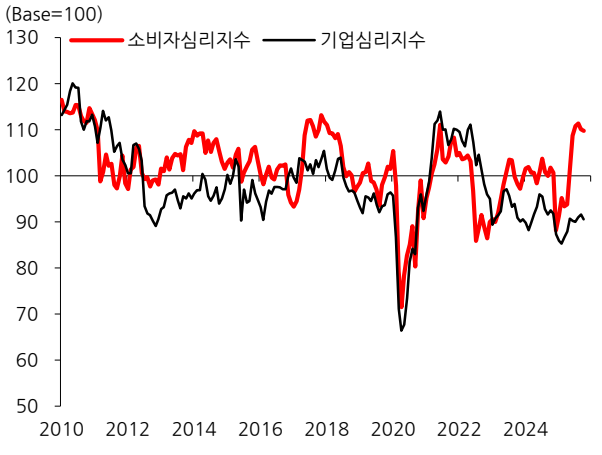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한국 광공업생산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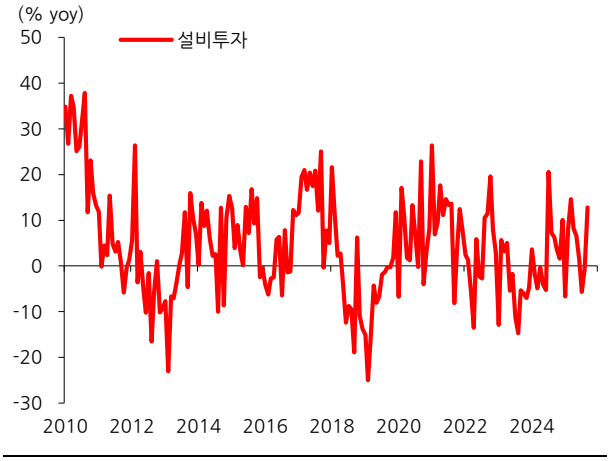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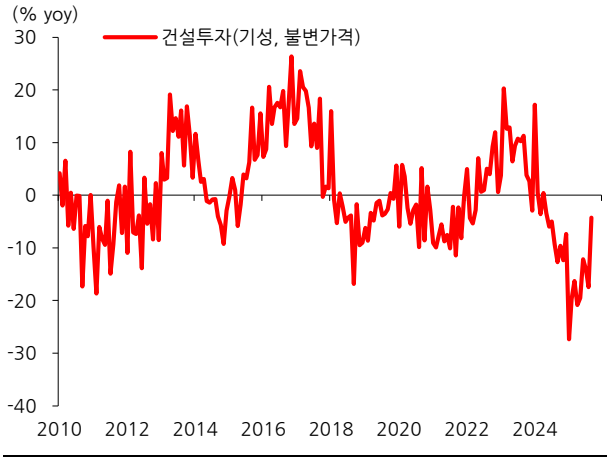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한국 설비투자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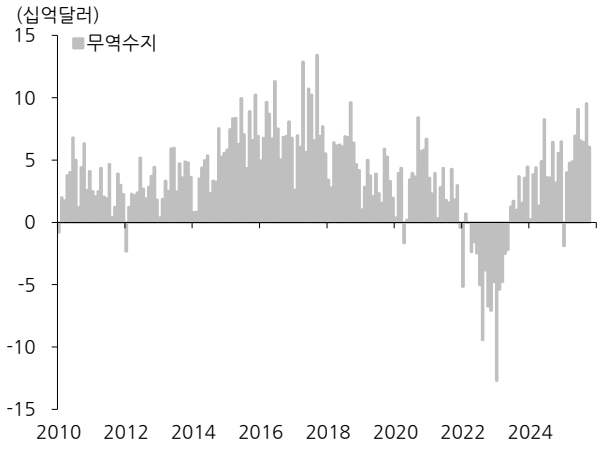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한국 건설투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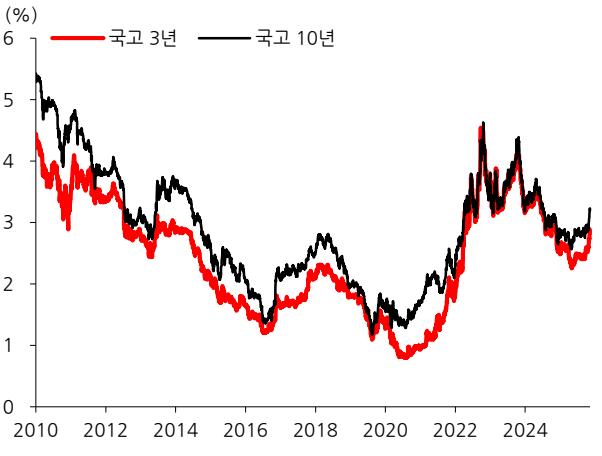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한국 무역수지 +60.6 억 달러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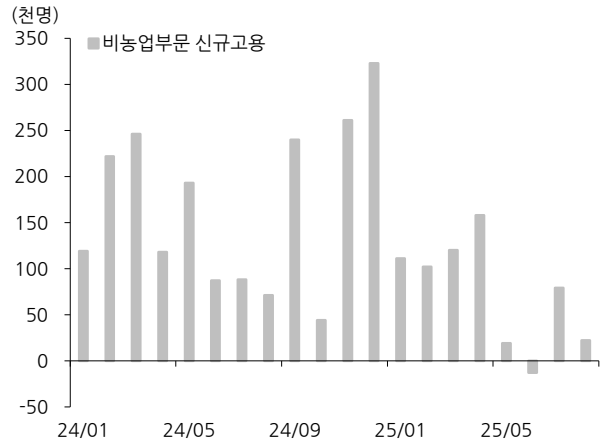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셧다운 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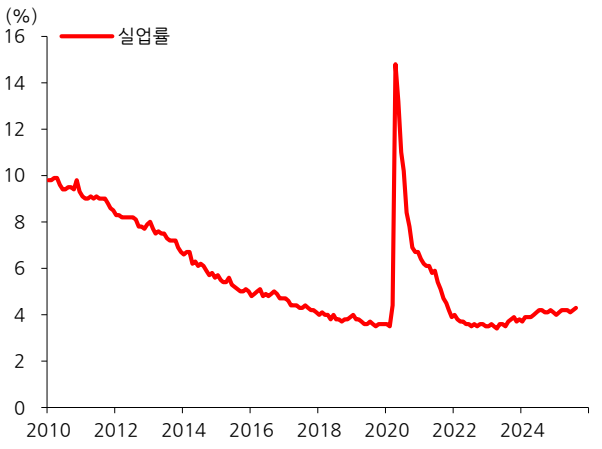
-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고용 및 물가지표 발표 지연
- 민간 대체지표는 완만한 경기 둔화를 시사하지만, 경기 판단 불확실성 확대
- 12월 FOMC 전까지 불확실성 높은 국면 지속 전망

[그림44] 8 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2.2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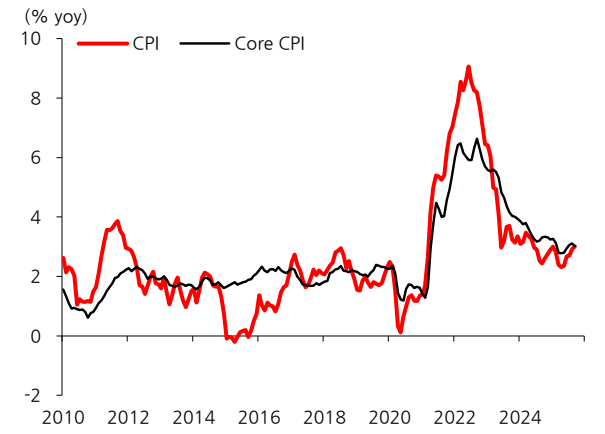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8 월 미국 실업률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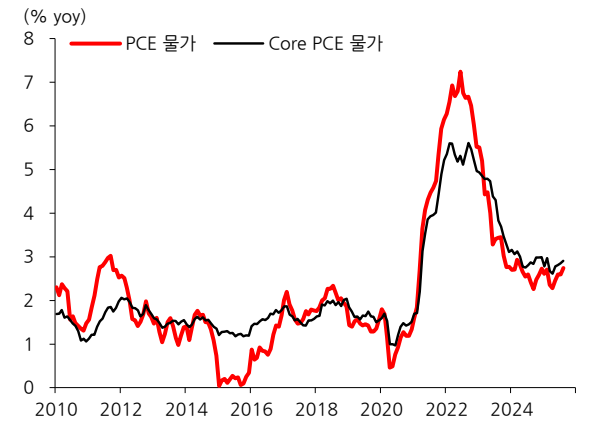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9 월 미국 소비자물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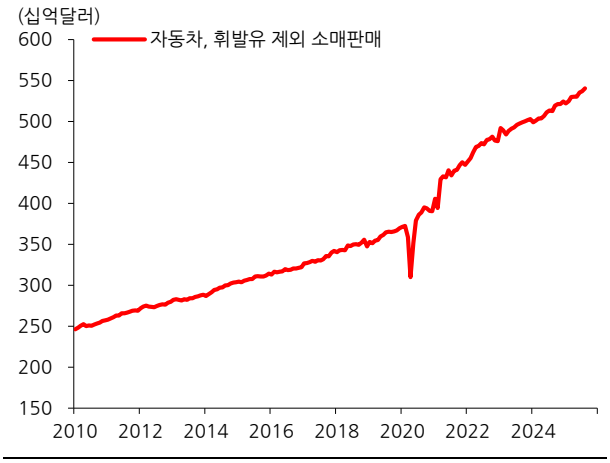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8 월 PCE 물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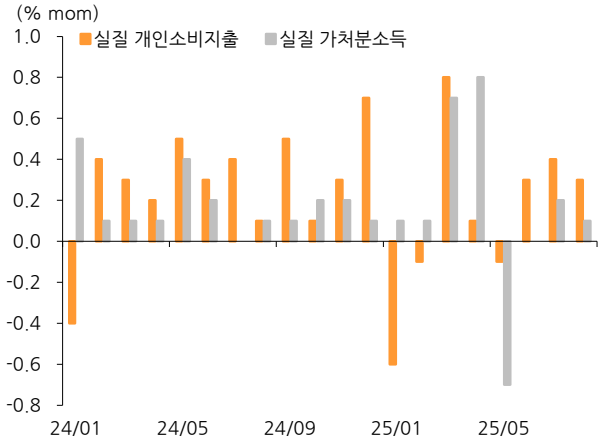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8 월 미국 자동차/휘발유 제외 소매판매 MoM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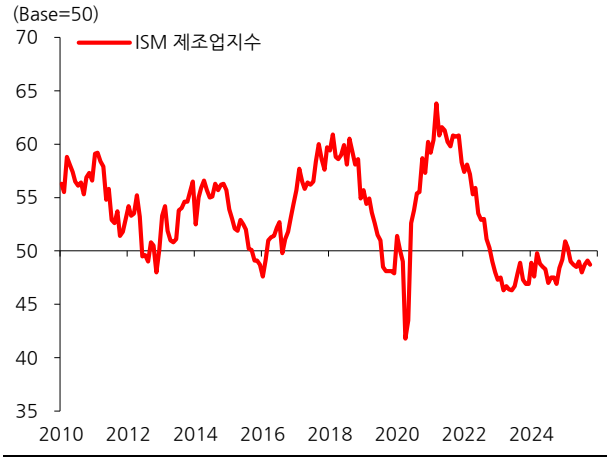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8 월 미국 실질소비 +0.3%, 가처분소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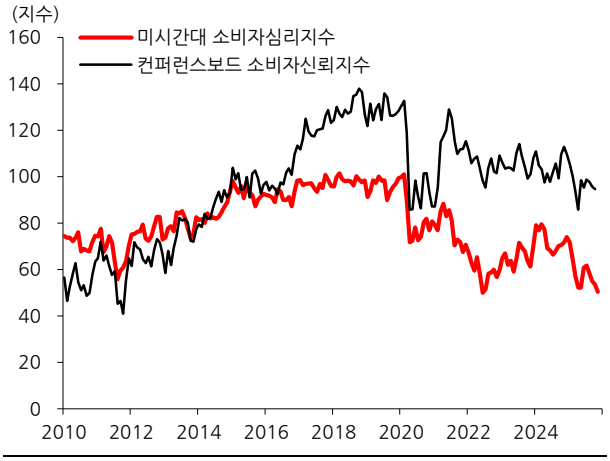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ISM 제조업지수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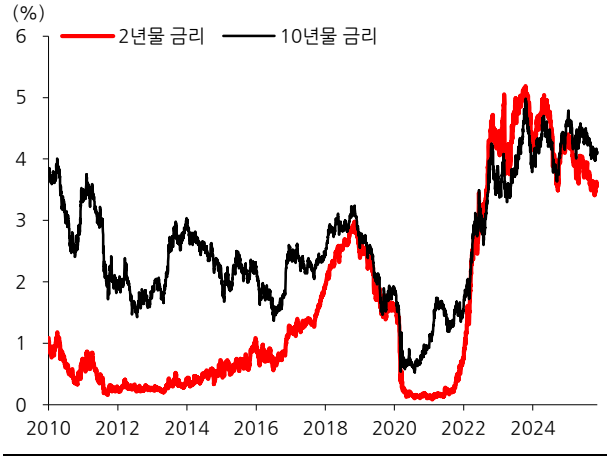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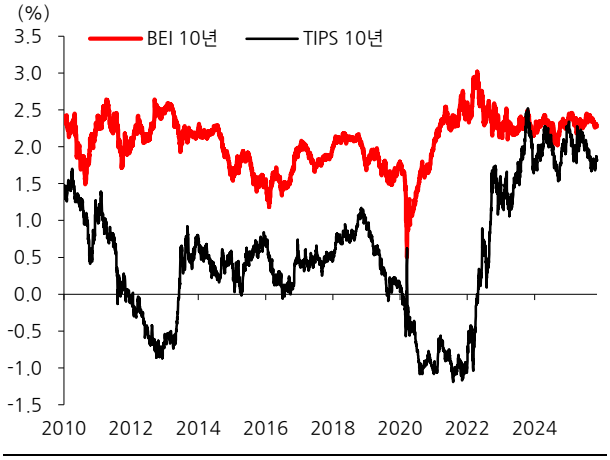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미 국채 2 년, 10 년 금리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BEI 및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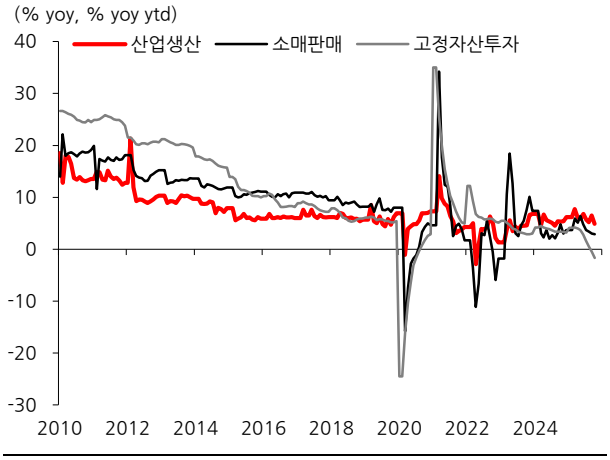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약해지는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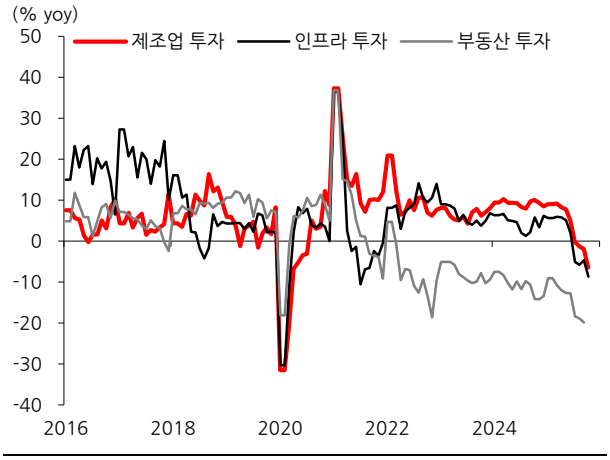
- 10월 실물지표는 대체로 부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 둔화
- 연말 정책 공백과 대외수요 둔화도 부담
- 연간 5%대 성장 유력하지만, 4/4분기 경기 회복세는 약해질 전망

[그림54] 중국 산업생산 +4.9%, 소매판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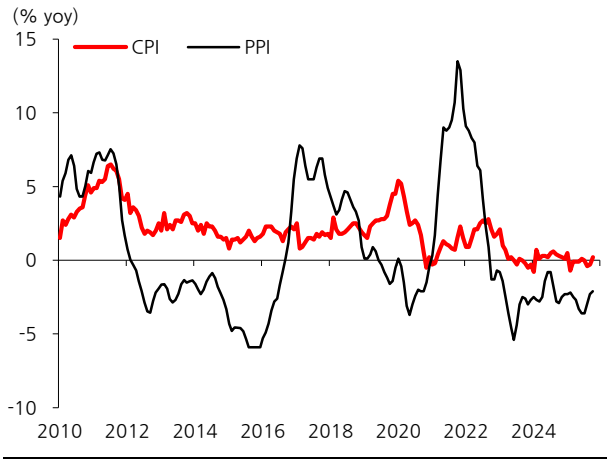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중국 인프라투자 -8.7%, 부동산투자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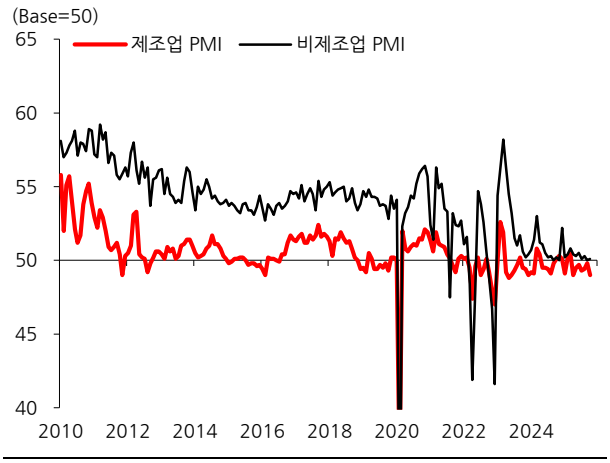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중국 소비자물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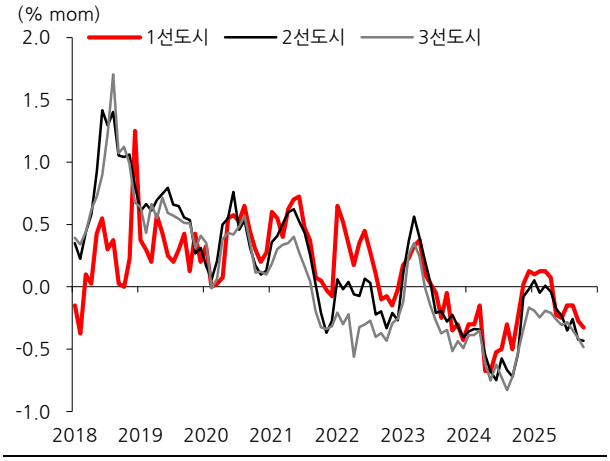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중국 제조업 PMI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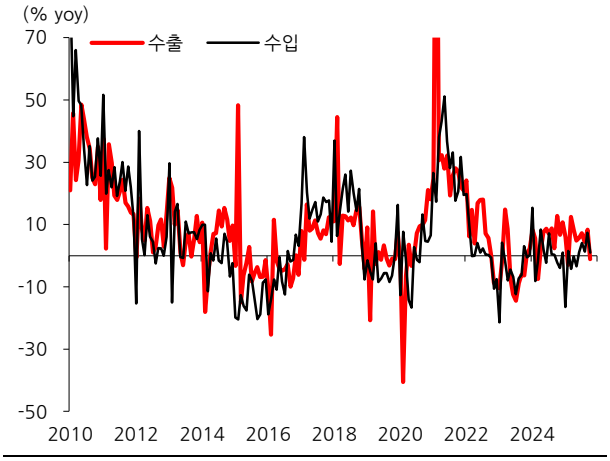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중국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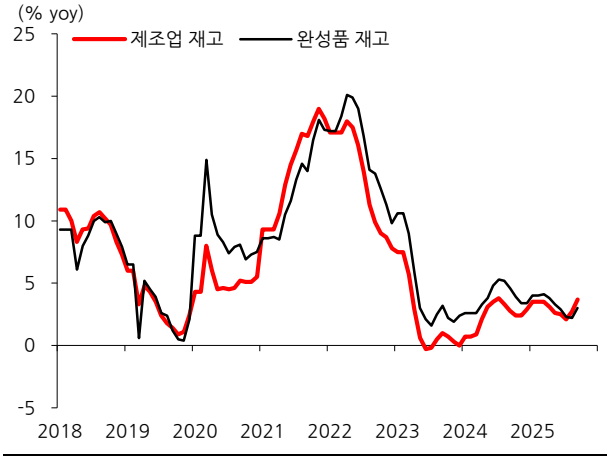
자료: CEI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중국 수출 -1.1%, 수입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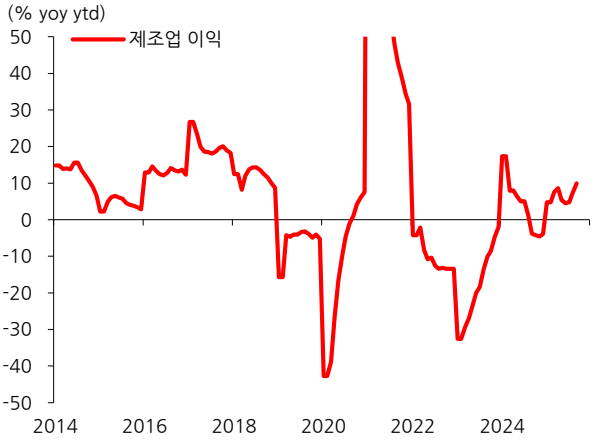
자료: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중국 제조업 재고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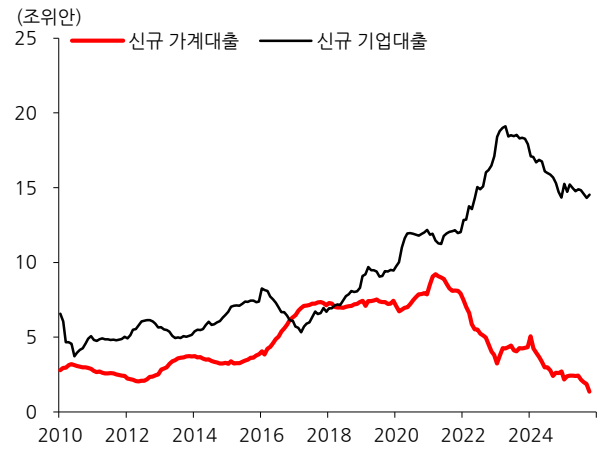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중국 제조업 이익 +9.9%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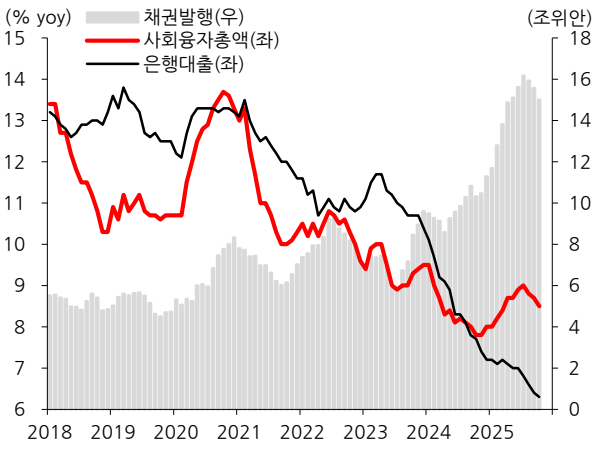
[그림62] 중국 가계 및 기업대출



주: 12개월 이동합

자료: The People's Bank of Chin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3] 중국 사회융자총액 +8.5%



주: 채권발행은 12개월 이동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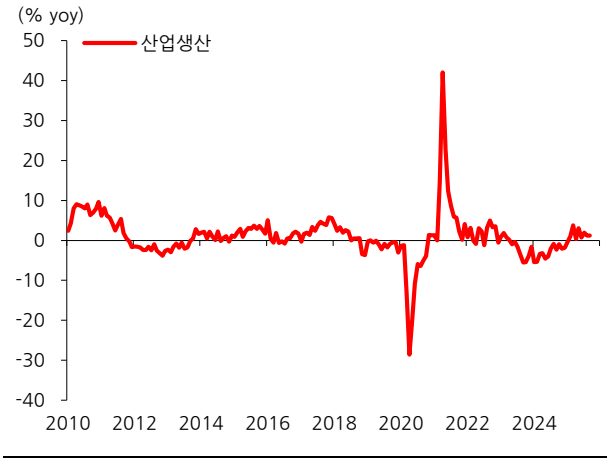
자료: The People's Bank of Chin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로존

완만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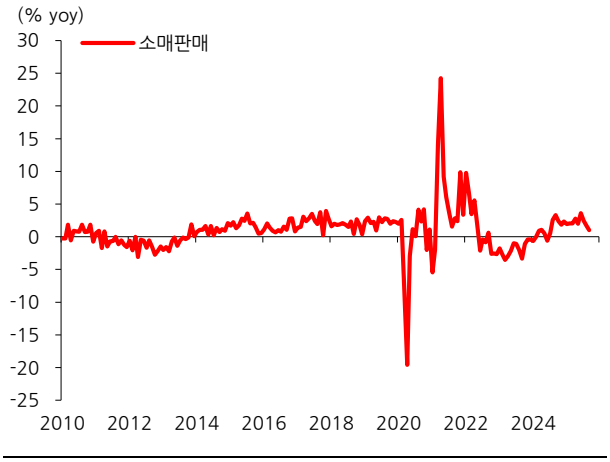
-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상대적으로 양호
- 실물경기 완만한 회복 및 안정적인 물가 흐름 지속
- 금리 인하 효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지 여부 확인 필요

[그림64] 유로존 산업생산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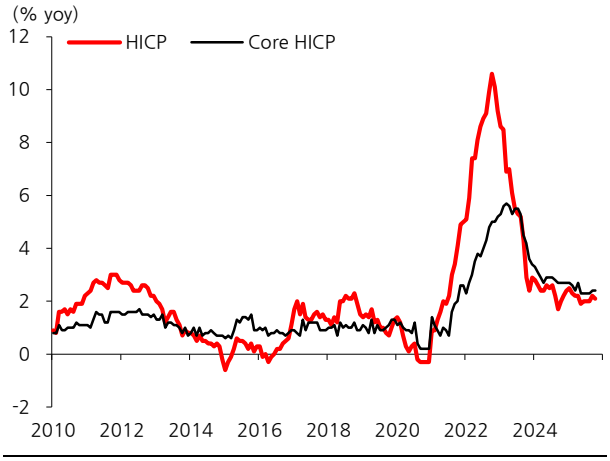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5] 유로존 소매판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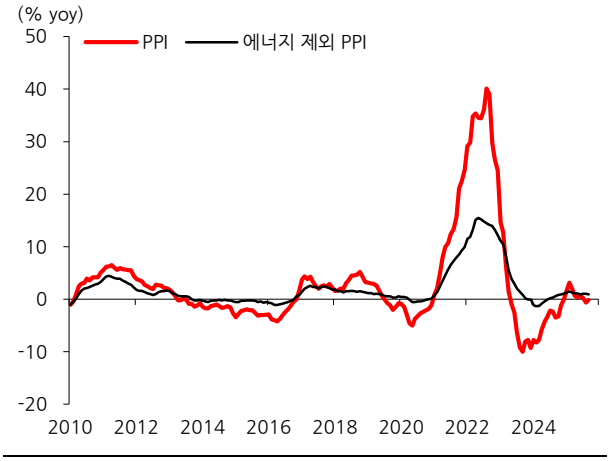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6] 유로존 소비자물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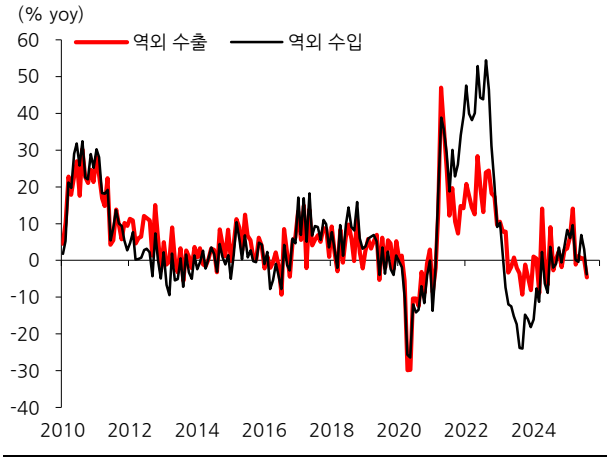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7] 유로존 생산자물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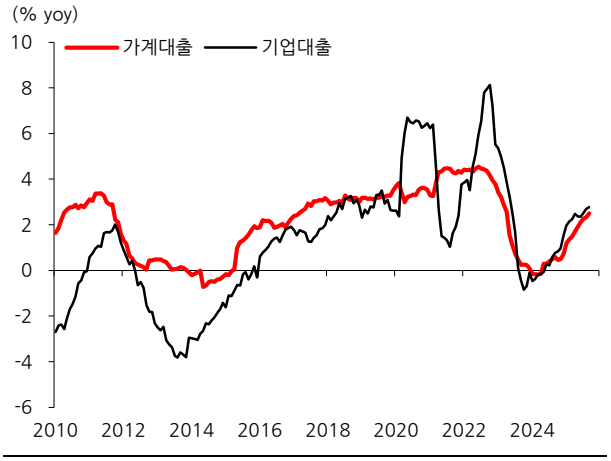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8] 유로존 수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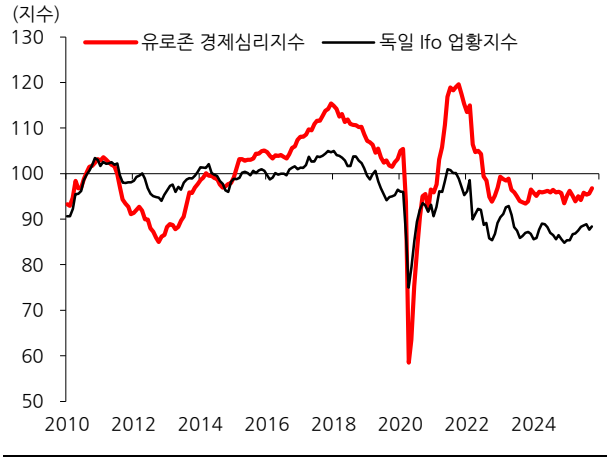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9] 유로존 가계대출 +2.5%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0] 유로존 경제심리지수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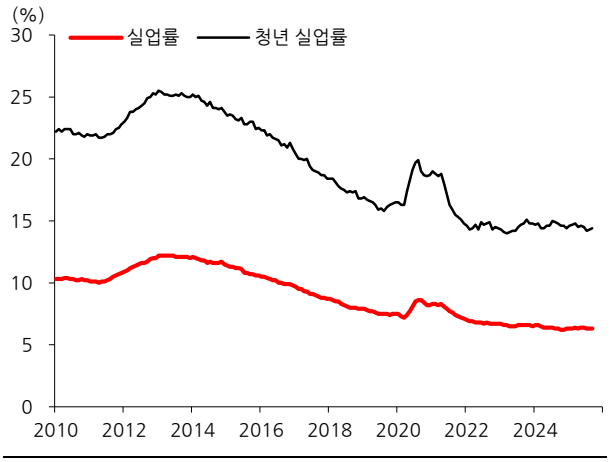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Ifo Institut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1]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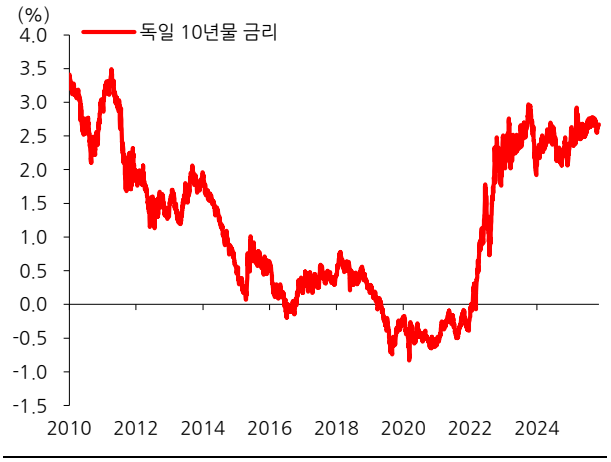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2] 유로존 실업률 6.3%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3] 독일 10 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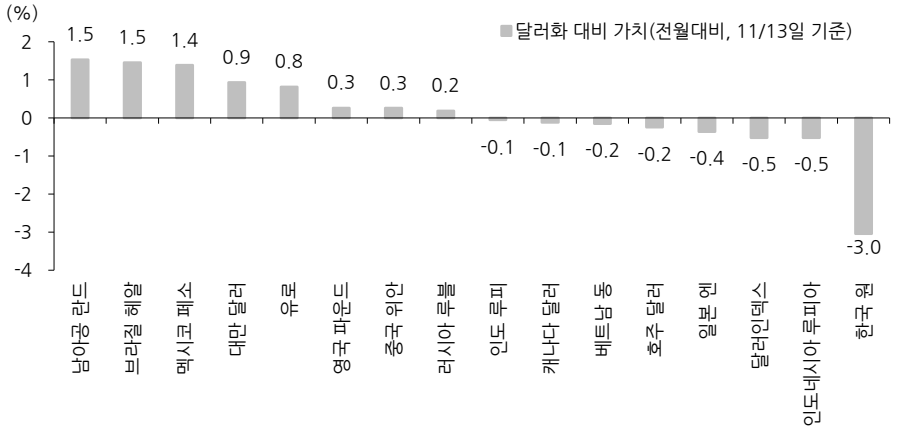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버티는 달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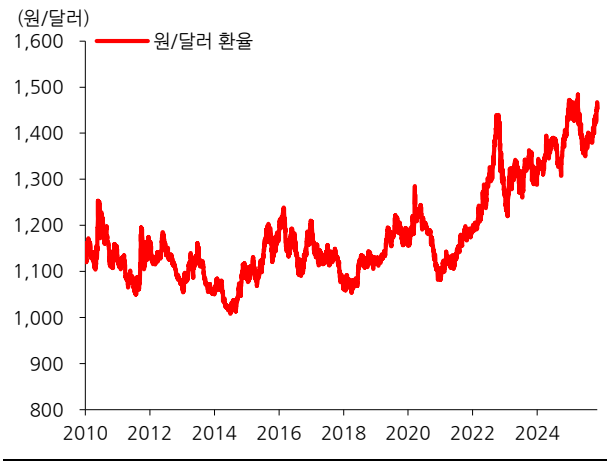
- 달러화는 FOMC를 기점으로 점차 약해질 전망
- 12월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 요인
- 다만, 관세의 물가 영향 확인되기 전까지는 달러화 약세 폭 제한

[그림74]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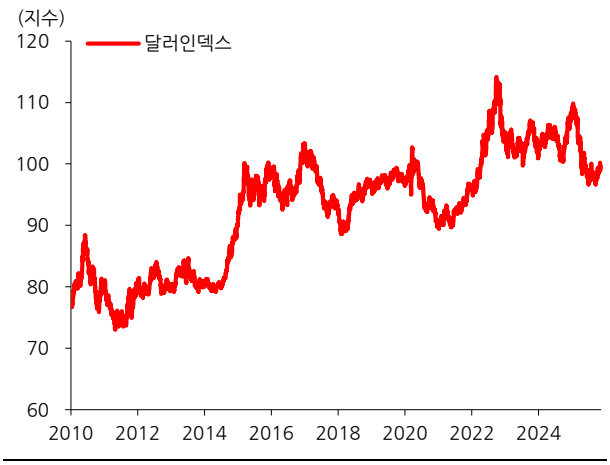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5]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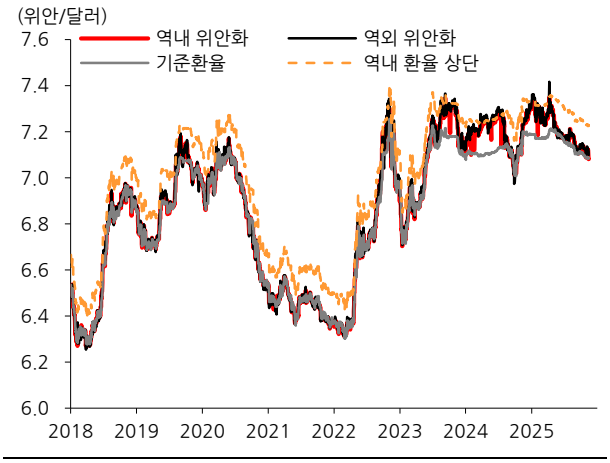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6]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7] 위안/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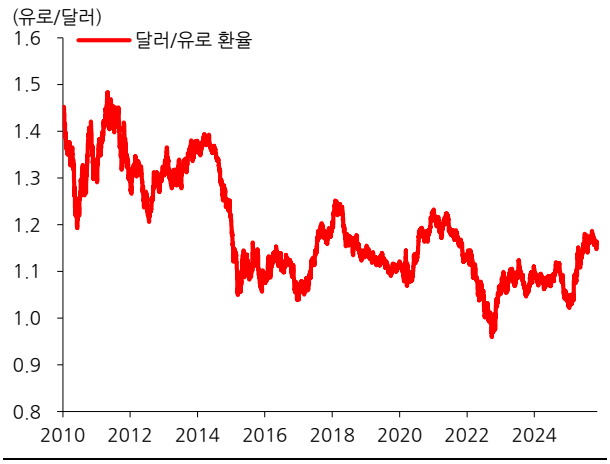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8]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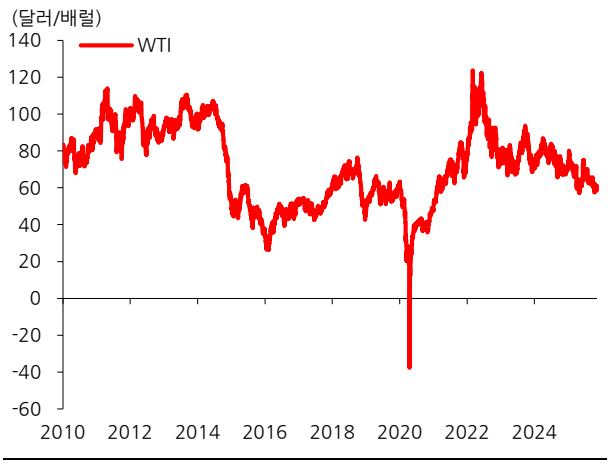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9] 달러/유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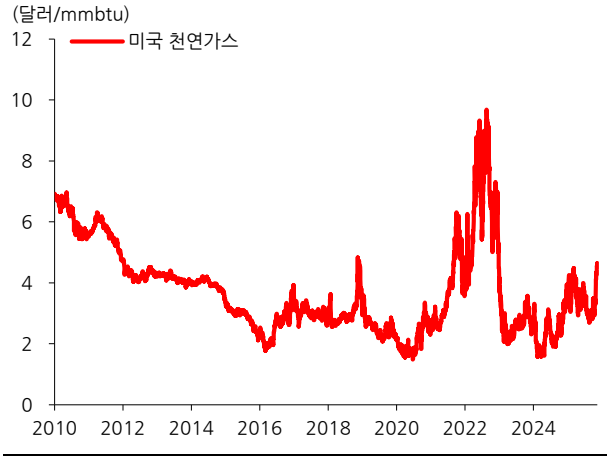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0] W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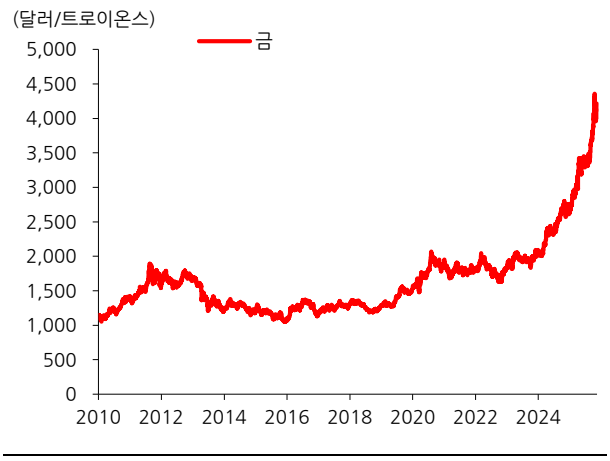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1] 미국 천연가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2] 금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V. Economic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2/1 **(한) 11 월 수출/입 YoY (3.6%/-1.5%)** (미) 11 월 ISM 제조업 PMI (48.7)	2 (한) 11 월 CPI YoY (2.4%) (유) 11 월 HICP YoY (2.1%)	3 (미) 11 월 ISM 서비스업 PMI (52.4)	4 (유) 10 월 소매판매 MoM (-0.1%)	5 (미) 12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0.3)
8 (중) 11 월 수출입 YoY (-1.1%/1.0%)	9	10 (한) 11 월 실업률 (2.6%) (중) 11 월 CPI YoY (0.2%)	11 **(미) FOMC 회의**	12
15 **(중) 11 월 산업생산 YoY (4.9%)** **(중) 11 월 소매판매 YoY (2.9%)** **(중) 11 월 고정자산투자 YoY ytd (-1.7%)** (유) 10 월 산업생산 YoY (1.2%)	16 (유) 12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0.0) (유) 12 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3.0) (유) 12 월 ZEW 경제심리지수 (25.0)	17	18 (유) ECB 통화정책회의	19 (한) 11 월 PPI YoY (1.2%) (유) 12 월 소비자신뢰지수 (-14.2)
22 (중) 12 월 1 년 만기 LPR (3.00%)	23 (미) 12 월 CB 소비자신뢰지수 (94.6)	24 (한) 12 월 소비자심리지수 (109.8)	25	26
29	30 (한) 1 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92.6) (한) 11 월 광공업생산 MoM (-1.2%)	31 (한) 12 월 CPI YoY (2.4%) (중) 12 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0) (중) 12 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50.1)		(미) 11 월 고용보고서 (지연) (미) 11 월 CPI, PPI (지연) (미) 11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지연) (미) 11 월 주택착공건수, 건축허가 (지연) (미) 11 월 내구재 주문 (지연) (미) 11 월 PCE 지표 (지연)

주1: 한국시간 기준

주2: 괄호 안은 이전치. 직전 수치 없을 경우 그 이전치(11/14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re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